

## 반도체, 자동차 부활이 KOSPI에 전하는 메시지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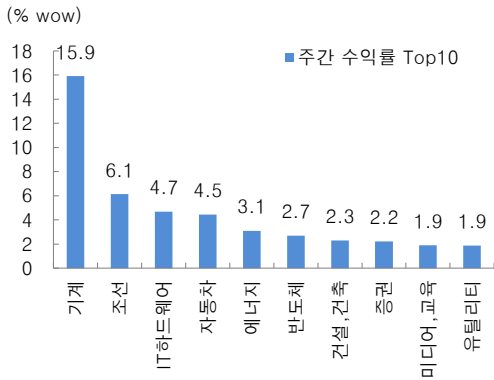
Strategist, RA 김정윤

jungyoon.kim@daishin.com

- 지난주 KOSPI는 3,200선을 넘어서었다. 미국발 조기 테이퍼링 우려에도 불구하고 KOSPI는 장 중 낙폭을 축소하고, 3,240선을 지켜냈다. 이처럼 KOSPI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선전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주 주간 상승률 Top10 업종에 자동차(4.5%)와 반도체(2.7%)가 4위, 6위에 자리했다. 주간 상승기여도는 자동차 18.8%, 반도체 44.2%로 두 업종이 KOSPI 주간 상승의 73%를 이끌었다. 시가총액 비중이 34.3%임을 감안할 때 두 배 이상의 주도력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 반도체, 자동차의 부활, 시장 주도력 회복에 주목하는 이유는 추세반전의 시그널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었는데 누적 순매수 추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한 주의 변화라는 점에서 선부른 판단 일 수 있지만,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 병목현상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1) 생산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어 2) 경기 정상화 과정에서 고용시장이 회복될 경우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는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3) 무엇보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 백악관 또한 공급 병목현상을 일시적으로 판단 중이다.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단기 불안을 안정시키는 것과 더불어 향후 산업성장에 추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칩 부족에 대한 주요국들의 산업 육성 정책 연이어 발표되고,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반도체 공급 우려보다 향후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투자확대를 결정지었다. 이번주 예정된 미국 백악관 주도의 공급망 해결을 위한 회의에서도 한국 기업이 주목받을 것이다.
- 한편, 공급망 병목현상이 완화되고, 정책 지원이 강화된 상황에서 하반기 제조업의 탄력적인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 1) 수요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에서 2) 제조업 가동률 상승, 3) 고용회복, 4) 재고축적 수요 등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제조업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모멘텀이 강해질 전망이다.
- 물론,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의 여파가 경제지표, 기업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반도체 4월 생산은 전월대비 10.9% 급감했고, 중국 5월 국가통계국 PMI 부진도 공급망 병목현상의 영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도체 2/4분기 2주전 2.3% 하향조정되는 등 실적 불확실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는 견조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1/4분기에 이어 4월, 5월 중순까지 부진했다.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주가에 상당부분 선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2) 미국 정부의 4대 핵심 품목(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공급망 조사 종료 이후 해결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급차질로 인한 불확실성은 정점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3)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주가는 악재를 선반영했고, 악재가 아직 확인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약화되며 주가가 먼저 반응하고 있다. \*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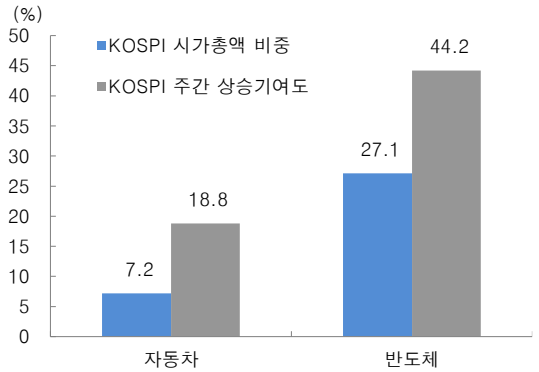
- 최대 피해산업으로 여겨지는 자동차는 5월초 저점 이후 반등시도에 나섰고, 5월말에는 추세 반전 시그널이 발생했다. 기술적 지표들에서 2월 이후 3개월 이상의 상승다이버전스가 전개됨에 따라 향후 자동차 업종의 추세적인 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을 예상한다.
- 반도체는 5월 중순 이후 반등시도에 나섰다. MACD OSC와 Stochastics에서 매수시그널 발생으로 추가 반등시도가 가능해 보인다. 다만, 5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있고, 직전 상승추세대 하단인 3,800 ~ 3,900p 돌파/안착 여부가 추세전환 여부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라 하겠다. 지난 주말 하락반전에 상당한 저항력이 확인되었지만, 공급망 해결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세 반전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추세반전은 KOSPI 상승추세 재개, 강화에 주요 동력이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공급불안이 완화된다면 글로벌 경쟁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 한국 기업이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회복, 정책 지원이 가세하고 있다. 펀더멘털 동력에 근거한 KOSPI 급행열차 출발이 멀지 않았다.

그림 1. 자동차, 반도체 업종의 동반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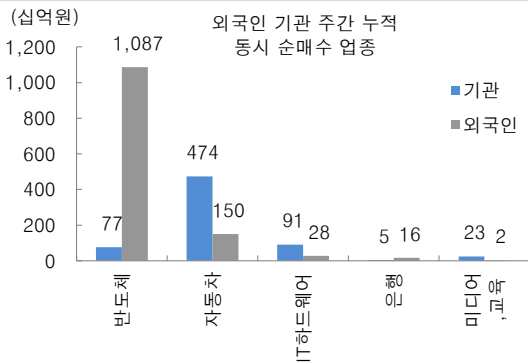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지난주 KOSPI 상승의 73%를 자동차, 반도체가 이끌어(시가총액 비중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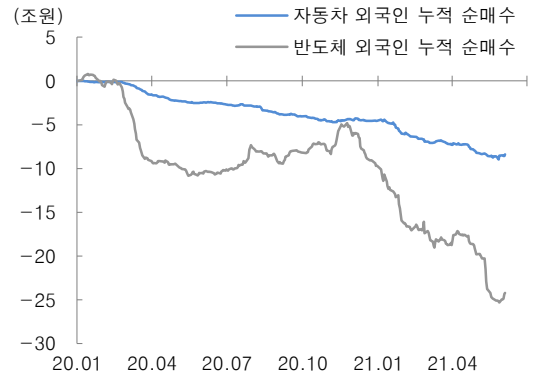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자동차, 반도체,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외국인 수급사이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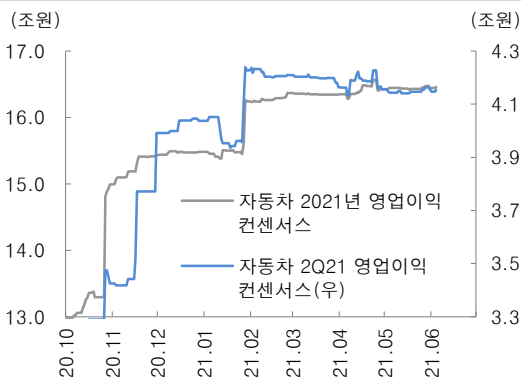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반도체 칩 부족에 대한 주요국들의 산업 육성 정책 발표. 반도체 공급 우려보다 향후 성장성에 주목

국가	정책	내용
미국	CHIPS for America Act 2020	- 2024년까지 기존 설치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40%까지 환급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 - 미국내 파운드리 공장 건설 지원 위해 총 150억 달러 규모 연방기금 조성(10년 운용) 반도체 공장 및 R&D센터 건설에 1건당 최대 3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 지급
	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	- 반도체 기술개발 위해 총 120억 달러 지원, 향후 10년간 7.5억달러 규모 신탁펀드 조성 - 상무부: 반도체 제조시설, R&D 시설 건설·확장·현대화 위해 주정부에 150억 달러 지원 - 국립고등연구사업국(DARPA),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수행하는 반도체 관련 R&D에 50억 달러 지원
	국방수권법안(NDAA) 반도체 관련 내용	- 반도체 시설 및 장비 건설 관련 인력양성 지원, 개별 프로젝트에 최대 30억 달러 지원 -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 위한 민관 합동 국가 반도체 기술센터(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설립 - 미국 내에 생산공장 건설(국외 기업 포함)할 경우 150억 달러 규모 보조금, 세제혜택 지원
	미국반도체연합(SAC) 출범	- 인텔, 엔비디아, 퀄컴 등 칩 제조업체와 아마존, 애플, 구글 참여 - 총 2.3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에 500억달러 규모 반도체 지원책 포함
유럽	반도체 자립 계획	- 메르켈 독일 총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36억유로 투자 발표 - EU 집행위원회(2030 디지털 컴퍼스):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의 최소 20%를 유럽 내에서 생산하도록 할 계획 (1,500억유로 규모 투자 계획)
한국	K-반도체 벨트 구축 계획	-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 구축 추진 -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6만명 양성 계획 -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2021년 41.8조원을 시작으로 10년간 누적으로 510조원 투자 예정 - 세액공제: 반도체 R&D에 최대 40~50%, 반도체 신설투자는 최대 10~20% - 총 1조원 이상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 지원
	대미 투자 계획	- 삼성전자: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공장 증축에 총 170억달러 투자 계획 - SK하이닉스: 실리코밸리에 10억달러 규모 R&D센터 건립 계획 -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140억달러 규모 신규 투자 계획 - 현대차: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위해 74억달러 투자 계획
중국	14·5 규획	- 14·5 규획(2021년~2025년) 초안에서 반도체를 7대 핵심 육성 기술로 선정 - 반도체 기술 지원정책 중 차세대 반도체 재료 R&D 강화를 공식적으로 문건에 명시 - 베이징: 첨단 반도체 기업의 제조용 보조 재료와 핵심 장비의 R&D 및 연구 성과 상용화 지원, 핵심 부문·재료·제조 장비 자체 제어능력 강화
	지방정부 정책	- 상하이(상하이린강신구 집적회로산업 전용 프로젝트 2021~2025): 집적회로 장비 및 재료 기업 중 연간 판매 수익이 5,000만/1억/5억/10억 위안 초과한 기업에 심사를 거쳐 각각 200만/800만/1,200만/1,500만 위안의 장려금 최초 1회 지급, 각 수익 구간 돌파 시 장려금 1회 지급(차액 보충 지급) - 광저우: 스마트 센서, 전력 반도체, 로직 반도체, 광전자 소자, 혼합 신호, 무선 주파수 회로 등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기업의 12인치 집적회로제조 생산 라인 2~3곳 유치 - 선전: 3세대 반도체 선도 기업 유치, 해당 기업의 RF 장비와 전력 전자 장치 생산 라인 구축지원, 3세대 반도체 RF 장비/전력 전자 장치/광전자 소자의 설계, 제조, 재료 선도 기업 및 혁신 인재 유치
대만	TSMC 투자 확대	- 반도체 생산력 확장에 향후 3년 동안 1,000억달러 투자 발표 - 중국 난장공장에서 28나노미터 반도체 증산할 계획(28억달러 규모) -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달러 투자해 반도체 공장 건설 발표(2024년 원로 예정, 3년 내 5개 공장 증설 추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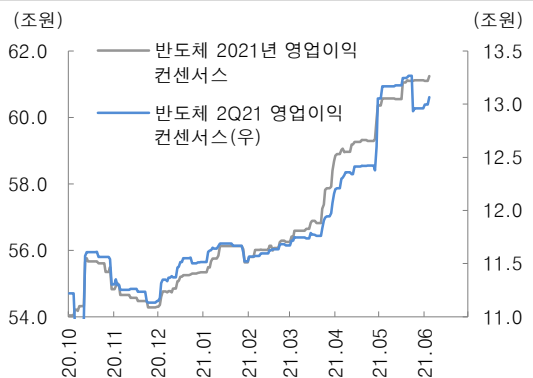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자동차 이익전망. 하향안정 & 개선 가능성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반도체 이익전망. 단기 불안에 그치는 양상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KRX 자동차 일간차트. 중요저항선 돌파로 추세반전에 성공하며 상승탄력 강화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KRX 반도체 일간차트. 중요 저항권에서 추세반전 모색 중(자동차를 따라가는 양상)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김정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